

‘역대급’ K리그...모든 것은 마지막에

전북 3연패 · 서울 ACL 진출 · 인천 잔류 등
모든 것이 최종 38R에...누적관중 182만7061명



전북현대가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리그 3연패에 성공했다.



ACL 진출권을 따낸 FC서울



11월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19 경남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둬 K리그1 잔류를 확정 지은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유상철 감독을 행가래 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전북 현대의 극적인 역전 우승, FC서울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 인천 유나이티드의 잔류로 K리그 역대급 시즌이 막을 내렸다.

1일 오후 3시 일찌히 펼쳐진 최종 38라운드를 끝으로 하나원큐 K리그1 2019'가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시즌 내내 앞치락뒤치락을 반복한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현대가(家) 선두 싸움은 전북이 막판 역전 우승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전북은 이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38라운드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 손준호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전북은 승점 79점(22승13무3패)으로 울산과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극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따냈다. 2017년과 2018년 우승에 이은 3연패다.

하늘이 도운 우승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자력으로 우승이 불가능했던 전북이었다. 강원과의 38라운드를 일단 이겨놓고,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데비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영일만 항제' 포항의 선전을 바라야만 했다.

전북의 바람을 들은 것일까. 포항은 울산에 '어게인(Again) 2013'의 악몽을 재현시켰다. 포항은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둬 4위(16승8무14패·승점 56)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포항은 지난 2013년 12월1일 울산과의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김원일의 극장골로 울산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이날 1-1로 팽팽하던 후반 9분 터진 일류첸코의 골은 2013년 김원일의 골과 흡사하기까지 했다. 포항은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재용의 헤딩이 울산의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자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김승규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김승규의 손에 맞고 흐른 공이 발 앞에 떨어지자 일류첸코가 마무리하면서 2-1로 달아났다.

이후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라인을 올린 울산의 뒷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노려 두 골을 더 넣어 완승을 했다. 14년 만의 우승을 노리

던 울산에 12월1일은 잊고 싶은 날이 되고 말았다.

같은 시간 DG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서울의 경기는 ACL 진출권이 달린 단두대 매치였다. 비기기만 해도 3위를 확보, ACL에 진출할 수 있던 서울이지만 올 시즌 최고의 흥행 구단인 대구의 홈이라는 점에서 승부를 험사리 예측할 수 없었다.

서울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며 한 골을 노렸고, 대구가 전반에 슈팅 0개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나섰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서울은 후반 들어 수비를 강화했고 대구가 잇따라 찬스를 잡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결국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지난 시즌 승강 PO까지 떨어져 자존심을 구졌던 서울은 이로써 최종 3위(15승11무12패·승점 56)로 시즌을 마치며 ACL 진출권을 따냈다. 반면 올 시즌 첫 ACL 진출에 성공하며 새 구장에서 K리그 흥행을 이끌었던 대구의 2년 연속 ACL 진출은 무산됐다.

앞서 11월의 마지막 날에는 우승권 다툼만큼 치열했던 강등권 경쟁이 인천의 승리로 끝났다.

인천은 유상철 감독의 투혼과 함께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경남의 파상공세를 잘 막아내 10위(7승13무18패·승점 34) 자리를 수성, '잔류왕'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내년 시즌에도 K리그1에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경남은 승점 1점 차로 11위(6승15무17패·승점 33)로 정규리그를 마감하고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PO를 치르게 됐다.

이제 남은 건 경남과 부산의 승강 PO뿐이다. 두 팀의 승강 PO 1차전은 오는 5일 오후 7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2차전은 오는 8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모든 것이 마지막에 결정된 역대급 시즌답게 올 시즌 K리그1 총 228경기 누적관중은 182만7061명으로, 경기당 평균관중 8013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당 평균관중이 8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최초로 올 시즌 뜨거운 K리그 열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BO리그 골든글러브 수상자들

KBO, 역대 최다 102명 골든글러브 후보

SK 13명 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역대 최다인 102명의 골든글러브 후보를 발표했다.

KBO는 2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의 올해 후보는 지난해 97명보다 5명이 증가한 10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타석 충족, 10승 이상, 30세 미만 이상,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⅓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투수 부문 후보는 린드블럼, 유희관, 이영하, 이용찬(이상 두산), 오키시, 브리검, 최원태, 김상수(이상 키움), 김광현, 산체스, 문승원, 박종훈, 서진용, 하재훈(이상 SK), 윌슨, 켈리, 차우찬, 고우석(이상 LG), 투친스키, 이재학, 구창모, 원종현(이상 NC), 쿠에바스, 알칸타라, 김민, 배제성(이상 KT), 양현종, 윌런드, 터너(이상 KIA), 백정현, 윤성환(이상 삼성), 서포드, 채드벨(이상 한화), 레일리, 다이슨(이상 롯데) 등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35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두산 박세혁, SK 이재원, LG 유강남, NC 양의지, KT 장성우, 삼성 강민호, 한화 최재훈 등 7명은 포수 부문에서, 두산 페르난

데스, KT 유한준, KIA 최형우, 한화 김태균, 롯데 이대호 등 5명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1루수 부문에는 두산 오재일, 키움 박병호, SK 로맥, KT 오태근, 삼성 러프 등 5명이, 2루수 부문은 LG 정주현, NC 박민우, KT 박경수, KIA 안치홍, 삼성 김상수, 한화 정은원 등 6명이 경쟁한다.

3루수 부문은 두산 허경민, SK 최정, LG 김민성, KT 황재균, KIA 박찬호, 삼성 이원석, 한화 송광민 등 7명, 유격수 부문은 두산 김재호, 키움 김하성, SK 정성현, LG 오지환, KT 심우준, KIA 김선빈, 삼성 이학주, 한화 오선진, 롯데 신본기 등 9명이 후보에 올랐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 후보는 정수빈, 김재환, 박건우(이상 두산), 이정후, 샌즈, 임병욱(이상 키움), 김강민, 노수광, 함동민(이상 SK), 이천용, 채은성, 김현수, 이형종(이상 LG), 이명기, 권희동, 김성욱(이상 NC), 문호성, 김민혁(이상 KT), 이창진, 터커(이상 KIA), 박해민, 김현군, 구자욱(이상 삼성), 효인, 장진혁(이상 한화), 전준우, 손아섭, 민병현(이상 롯데) 등 28명이 골든글러브 후보다.

10개 구단 중 KT는 모든 부문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SK는 13명이 후보에 올라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한편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5시15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며, 지상파 TV MBC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생중계된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명품하는 행복의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